

 안산상공회의소 2026년 07월 08일(수) 배포 시 보도 요망	報道資料	담당부서	교육통상팀	
		담당자	팀장 채선기	담당 서윤우
		전화번호	070-4571-5802	

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ansancci.korcham.net) ▷ 새소식 ▷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

안산상공회의소,

『제171회 최고경영자 강연회』 개최

- 남성욱 서울미래인재재단 이사장 초청
- ‘트럼프 2기 시대의 국제 정세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주제 강연

안산상공회의소(이하 안산상의)는 7월 8일(수) 그레이트홀에서 『제171회 최고경영자 강연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2기 시대의 국제 정세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남성욱 서울미래인재재단 이사장을 초청한 이번 강연회는 안산 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장·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권혁석 안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 중간선거를 비롯한 급변하는 대외환경은 우리 제조·수출 기업들에게 거대한 변수이며, 대내외 여건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고 유연하게 대응해 우리 기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증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강연에 앞서 이영찬 안산단원경찰서장은 ‘기업 안전과 지역 치안의 동행’을 주제로 중대 재해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본 강연에서 남성욱 이사장은 미·중 갈등과 중동 정세 변동에 따른 국제 질서를 설명하며, 힘이 국제 정치를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주의’ 흐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위기 상황일수록 단순히 정보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대의 흐름과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외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한국 무역 구조상 중동의 군사적 충돌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및 통행료 징수 리스크는 전 세계적인 유가 변동성을 키우고 해운 물류비를 폭등시켜 국내 제조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남성욱 이사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평소 국제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거시적인 글로벌 감각과 안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기 상황일수록 과거의 논리에 안주하지 않고 철저한 재고 및 리스크 관리로 기업의 생존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안산상의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최고경영자 강연회’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이슈와 이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1989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붙임. 행사 사진. 끝.

붙임. 『제171회 최고경영자 강연회』 사진

